

# 불가능은 없다... 브라질을 넘어라

벤투호, 내일 새벽 세계 최강과 16강전 빅뱅  
“원정 8강 기적 이루겠다”... 선수단 투지 ‘활활’

사상 첫 월드컵 원정 8강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가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일전을 앞두고 마지막 구슬땀을 흘렸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아래 15분 공개 훈련을 진행했다.

2일 포르투갈과의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둔 한국은 1승 1무1패(승점 4,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2010 남아공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이룬 토너먼트 진출이다.

16강전 상대는 월드컵 최다 우승국(6회)이자 FIFA 랭킹 1위의 ‘삼바축구’ 브라질이다.

벤투호는 포르투갈전이 끝나고 3일 전체 휴식을 부여했다. 경기를 하루 앞둔 이날이 브라질과의 일전을 앞두고 갖는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이다.

오른쪽 종아리 부상으로 포르투갈전에 결장했던 김민재(나폴리)는 스트레칭을 마치고 별도로 사이클과 가벼운 러닝을 가졌다. 종아리 부위에 테이핑했다.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히사틀리송(토트넘)·비니시우스 주니오르(레알 마드리드) 등 브라질의 막강 공격진을 막기 위해선 중앙 수비의 핵 김민재의 복귀가 절실하다.

김민재는 6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브라질 평가전에 부상으로 인해 함께 하지 못했다. 이 평가전에서 한국은 1-5로 완패했다. 김민재를 제외한 나머지 26명(예비 오현규 포함)은 모두 정상 훈련에 임했다.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시간 역전 결승골로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황희찬(울버햄튼)은 손흥민(토트넘)과 함께 훈련했다. 황희찬은 왼쪽 햄스트링 이상으로 조별리그 12차전에 결장했다.



손흥민과 황희찬이 4일(현지시간) 오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트레이닝센터에서 훈련하고 있다.

뉴스

손흥민도 16강 진출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한 덕인지 한결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태극 전사들은 브라질전을 치를 도하의 974 스타디움 답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974 스타디움 답사보

다는 휴식이 낫다는 판단으로 인해 경기 답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대신 경기 전에 이뤄지는 FIFA와 양국 스태프의 회의에 참여해 기본적인 동선과 분위기를 확인하기로 했다. 가나와 조

별리그 2차전에서 퇴장당해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봐야 했던 벤투 감독은 추가 징계가 없어 벤치로 복귀한다.

한편, 브라질은 이날 오후 6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간판 공격수 네이마르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다가 전날 비공

개 훈련에서 슈팅과 드리블 훈련을 진행해 출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과 브라질은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4시(현지시간 5일 오후 10시)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8강 진출을 다툰다.

스카이데일리/뉴스

## 돌아오는 네이마르... 더 강해진 브라질

벤투호의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전 상대인 ‘우승후보’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사진)가 돌아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브라질과 대회 16강전을 치른다.

조별리그 H조 최종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끈 포르투갈을 2-1로 꺾은 한국은 조 2위로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 이후 12년 만에 16강 무대를 밟는다.

상대는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인 브라질이다. 국제축구연맹(FIFA) 1위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이다.

브라질과는 역대 전적도 7전 1승 6패로 열세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올해 6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도 1-5 완패를 당했다.

미국 닐슨 산하 데이터 업체 그레이스노트에 따르면 한국이 브라질을 누르고 8강에 오를 확률은 23%로 집계됐다. 브라질은 77%다.

한국이 브라질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



발목 부상 회복 훈련 합류 네이마르 “뭘 준비 됐다”

수는 그들의 ‘부상 약제’였다.

네이마르가 세르비아와의 1차전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쳐 남은 대회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다. 네이마르는 이후 23차전에 연달아 결장했다.

설상가상으로 카메룬전에 선발로 나선던 가브리엘 제주스(아스널), 알렉스 텔레스(세비야)는 무릎을 다쳐 더는 월드컵에 뛸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출전이 불투명했던 네이마르가 한국전을 앞두고 현지시간으로 3일 팀 훈련에 전격 복귀하면서 브라질의 전력은 다시 업그레이드됐다.

브라질축구협회가 공개한 훈련 영상에서 네이마르는 오른쪽 발과 왼발을 가리지 않는 강 슛과 화려한 개인 기술까지 선보이는 등 발목 부상에서 회복했음을 알렸다.

네이마르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분이 좋다. 당장이라도 뛸 수 있을 것 같다”며 한국전 출전을 예고했다.

스카이데일리/뉴스

## 메시, 1000번째 경기서 마라도나 넘어

월드컵 통산 9골... 역대 아르헨 선수 2위

첫 스텝은 꼬였지만 박자를 되찾은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사진)다.

메시가 국가대표팀과 클럽 소속팀으로 통산 1000번째 경기에 나서 디에고 마라도나를 넘어서며 아르헨티나를 8년 만에 월드컵 8강에 올렸다.

아르헨티나는 4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월드컵에서 메시와 훌리레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앞세워 호주에 2-1로 승리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2014 브라질월드컵 이후 8년 만에 8강에 올랐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선 16강에 머물렀다.

메시는 0-0으로 팽팽한 전반 35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호주 수비진을 가로지르는 왼발 슛으로 선제 골을 터뜨렸다.

순조로운 행보다. 이 골로 메시는 대회 득점부문 공동 선두(3골)에 올랐다. 대회 시작은 불안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페널티킥으로 골맛을 봤지만 내리 2골을 실 점하며 1-2로 역전패 당했다.

세계가 감쪽 놀란 패배였고, 어쩌면 메시의 ‘다스트댄스’가 초라하게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게 한 경기였다.

메시는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2-0 승리를 이끌었다. 폴란드와의 최종전도 2-0으로 이기며 2승1패(승점 6,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169경기, 바르셀로나에서 778경기, 파리 생제르맹에서 53경기를 소화했다. 이날 선제골은 A매치 94호골이자 선수로서 통산 789번째 골이었다.

더욱이 월드컵 통산 9번째 득점으로 아르헨티나 선수 월드컵 통산 득점 순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우상 디에고 마라도나(8골)를 넘었다. 1000번째 경기에 의미를 더한 장면이다.

역대 1위는 바티스타루타로 10골이다. 5번째 월드컵에 나선 메시는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삼았다. 아직 오르지 못한 월드컵 정상에 도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0일 오전 4시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네덜란드와 8강전 승부를 벌인다.

스카이데일리/뉴스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쏘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10년 연속 판매 1위

NO. 1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Returnup 리턴업

쏘팔메토 파워

쏘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080-722-9988